

# 기호학의 새로운 사명

## － 교양교육에서 기호학의 역할\*

박일우\*\*

### 【 차례 】

- I. 들어가는 말
- II. 기호학의 초학제성
- III. 기호학이 모르고 있었던 것
- IV. 기호학, 교양교육으로 다가간다
- V. 맺는 말

### 국문초록

기호학은 아직도 그 성격이 규정이 되지 않은 채로 진행되는 학문으로 보인다. 기호학의 태동기부터 진행된 일련의 논의는 그 외연이 넓어지기만 할 뿐 학문의 대상, 방법론, 목표는 정계(定界)에서 더 멀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기호학은 하나의 독립된 학문이 아니라 학제적, 학문, 나아가 초학제적 학문 혹은 관점으로 이해된다. 의미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현상학, 수사학, 해석학은 물론, 매체의 변화에 따르는 오늘날의 모든 인식론적 모델이 넓은 의미에서 기호학의 구성요소로 참여한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에 대두되는 ‘교육기호학’은 기호학 연구의 발전과정에서 필연적인 수순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고등교육의 환경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와 입학 자원 고갈은 가장 먼저 인문학과 같은 기초학문에 치명타를 남긴다. 그동안 무분별하게 팽창해왔던 대학은 구조조정이란 급류에 휘말리는 중이다. 이 위기의 시대에 교양교육은 다시 정립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곧 융·복합과 인성을 화두로 삼는다. 이 두 덕목은 앞으로 교육과정만이 아닌, 대학의 편제, 즉 하드웨어를 다시 규정하는

\* 이 논문은 한국기호학회 2015년 춘계학술대회(2015. 5. 2. 인하대학교)에서 기초발제로 구두 발표된 내용을 담았다.

\*\* 계명대학교 교양교육대학

기준이 될 것이다.

기호학은 오늘날 대학교육의 위기를 제대로 된 고등교육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하나의 타개책이 될 수 있다. ‘융·복합’과 ‘가로지르기’라는 방법론은 기호학의 전매특허인 것이다. 교양교육, 나아가 학부과정의 교육과정은 기호학적 관점의 도입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글은 그러한 관점을 교양교육의 장에서 실현한 사례 두 가지를 제시하면서, 이제 기호학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과정과 교육철학의 메카로서 새로이 태어나자는 제안을 하는 것이다.

열쇠어 : 초학제성, 기호학적 발상, 교양교육, 융·복합, 응용기호학

## I. 들어가는 말

기호학이 우리나라 학계에 수용된 지도 거의 30년이 되어간다. 기호학 연구의 공식 기구로 자리매김한 한국기호학회가 출범한 해는 1995년이지만 그 이전의 개별 학자들에 의한 모색과 학회 창설 준비 기간을 고려해 보면 그만한 역사, 즉 한 세대가 흐른 것이다. 그동안 국내 기호학 연구의 발전 양상은 괄목할 만하지만 기호학은 이 시점에서 또 다른 사명에 봉착해 있다.

이 글은 현대 기호학의 태동과 초기 발전과정에서부터 필연적으로 초학제적(trans-disciplinary) 양상을 가지게 된 저간의 과정을 돌아보고, 국내 기호학 연구가 기호학 특유의 초학제적 성격을 이용하여 최근 고등교육의 장에서 제기되는 시대적 사명, 즉 융·복합과 창의성을 화두로 하는 오늘날의 교양교육의 요구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를 이론적 탐구나 정치한 논리적 전개라기보다는 에세이 형식으로 풀어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생태적으로 융·복합적인 기호학의 내용 일부를 가공하여 교양교과목으로 개발한 사례와, ‘기호학적 시각’에서 두 학문 분야를 융·복합하여 만들어낸 교양교과목 개발의 선행 사례를 들고, 궁극적으로 이와 관련된 후속 연구·개발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II. 기호학의 초학제성

기호학은 “기호를 연구하는 과학”이라는 수준의 동어반복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로 일반인에게, 심지어 지성사회에서도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지적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아마도 제일 먼저 접하게 될 집단지성이라 불리는 위키피디아에서 기호학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sup>1)</sup>:

Semiotics (also called semiotic studies; not to be confused with the Saussurean tradition called semiology) is the study of meaning-making, the philosophical theory of signs and symbols.

어찌자는 말인가. ‘의미 만들기’ 연구가 어떻게 ‘기호’나 ‘상징’의 철학적 이론과 동일시되는가? 이런 식의 기호학에 관한 모호한 정의, 혹은 연구 대상의 혼선은 대중에게만 제시된 것이 아니라 현대 기호학의 최초 성립 과정에서부터 촉발된 생태적 문제이기도 하다.

기호학의 성립과정을 되돌아볼 때 기호학의 대상과 방법에 대한 혼선은 주로 기호학과 언어학의 관계, 부차적으로는 기호학의 명칭, 즉 ‘기호학(semiotics)’과 ‘기호론(sémiologie)’의 구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소쉬르는 “사회생활 가운데에서의 기호의 일생”을 연구하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기호론’을 제안하면서 언어학을 일반 기호학의 한 부분으로 파악하고, 기호학이 발견한 규칙을 언어학에 적용함으로써 역으로 언어학은 인간 현상의 총체 가운데에서 한 영역을 차지한다고 보았다. 소쉬르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후계자들, 특히 프리에토(. L. Prieto)와 무넝(G. Mounin)은 기호론의 대상을 자연 언어를 포함한 커뮤니케이션의 체계로 국한하였다. 이에 비해 바르트(R. Barthes)는 먼저 ‘의미작용’의 측면을 강조하였다. 기호학이 오늘날 보는 것과 같은 다양한 대상을 가지게 된 것은 바르트에

---

1) <http://en.wikipedia.org/wiki/Semiotics>

이르러서였다.<sup>2)</sup>

기호학은 그 본질이 무엇이든, 그 한계가 무엇이든, 모든 기호 체계를 대상으로 삼는다. 의식이나 전범 혹은 구경거리에서 보이는 이미지, 동작, 운율을 가지는 소리들은 ‘언어’가 아닐지라도 적어도 ‘의미 체계’는 구성한다.

이 관점을 이어 받은 초기 기호학 설립자 중의 하나인 방브니스트였으나, 그에 이르러 다시 기호학의 이론적 모델은 언어학 모델로 고착되었다. 언어체계는 곧 모든 기호체계의 모델, 모든 기호체계를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체계이며, 모든 개별 기호체계는 결국 언어체계의 테두리에 편입됨으로써 가능하다는 그의 주장은 향후 기호학 연구에 드리워진 ‘언어학 모델’의 그늘을 걷어 낼 수 없는 원죄가 되었다. 기호학 발전 초기 잠시 진행되었던 ‘소통 기호학(sémiologie de la communication)’과 ‘의미작용 기호학(sémiologie de la signification)’의 대립 논쟁이나 기호학·언어학의 상대적 위상에 관한 논의는 모두 언어학이 기호학에 대해 가지는 특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당시로서는 기호학을 정초하기 위한 과정이었을 것이나, 현재의 관점으로는 단지 해프닝으로 여겨지는 측면이 있다. 프랑스어로는 두 가지의 용어로 불리던 명칭, 즉 ‘기호론’과 ‘기호학(sémiotique)’<sup>3)</sup>의 대립 역시 기호학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기호학’으로 통일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역사적 맥락과 용어, 역어의 혼동은 이후 국내에서의 기호학 수용과

---

2) Barthes, R., “Elements de sémiologie”, *Le Degré zéro de l'écriture*, 1968, p.79.

3) ‘기호학’은 퍼스의 명명인 ‘semiotics’에서 비롯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프랑스의 기호학 연구에서 이 용어를 도입한 학자는 쿠르테스(J. Courtés)로 보인다. 그는 인간 행위와 문화 현상을 의미작용 체계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실천적 연구를 ‘sémiotique’이라 명명하였다: La sémiotique (...) se donne pour but l'exploration du sens. Cela signifie qu'elle ne saurait se réduire à la seule description de la communication (définie comme transmission d'un message d'un émetteur à un récepteur): en l'englobant, elle doit pouvoir rendre compte d'un procès beaucoup plus général, celui de la signification (J. Courtés, *Introduction, à la sémiotique narrative et discursive*, Hachette, 1976, p.33).

정에서도 상당한 혼선을 가져온 원인이 되었지만, 초기 기호학의 근본 문제는 소쉬르가 예로 든 깃발 신호, 교통신호등, 모르스 부호 등의 한정된 대상을 넘어서지 못함으로써 결국은 일반기호체계를 언어기호체계의 대치물(substitution) 혹은 병행물(paralinguistics)로 국한시키고, 기호학의 이론 역시 언어학의 모델을 차용하는 결과를 불러오게 된 점이다. 초기 기호학에서 탁월한 연구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는 에코의 약호이론(code theory) 역시 그 본질은 언어학적 단위에서 보이는 ‘관여적 특징(trait pertinent)’과 ‘구성단위들(~ème)’의 음운론적·통사론적·의미론적 층위에서의 결합규칙을 차용한 것이다. 물론 언어기호체계는 모든 기호체계에서 모델이 되고 특히 20세기 이후 언어학의 발전은 단위, 체계, 구조라는 과학적 결과물을 만들어내면서 결국 구조주의(structuralism)라는 당대 모든 학문의 패러다임으로 부상하였지만, 기호학은 언어 이상의 대상을 가지며, 언어학은 기호학의 한 부분, 즉 ‘언어기호학’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기호학의 정계(定界)를 둘러싼 어려움이다. 기호학의 태동과 발전, 그리고 이 시점에서조차 기호학자들이 합의하는 유일한 사항은 기호학의 연구 대상을 ‘의미 체계’로 삼는 것뿐이다. 그런데 ‘의미 체계’조차 실은 이 세상 모두이다. 알고 보면 삼라만상이 다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기호학을 정계하고자 할 때 봉착하는 문제는 바로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계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막상 기호학의 연구가 진행되면서, ‘의미작용 체계’는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확장되었고 대상에 따라 요구되는 방법론 역시 백화만방의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된 것은 필연적인 수순이었다. 특히 이 ‘의미 체계’는 오늘날과 같은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과 혁신의 시대에는 미쳐 그 종류와 유형마저도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초기 기호학이 대상을 분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인식론적 모델이 아니라 경험적 모델, 즉 이미 진행되었거나 진행하는 연구의 내용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기호학의 하위

영역 역시 연구가 다루는 대상을 통해 잠정적으로 규정되었으며 이는 학술대회의 프로그램이나 기호학 아카이브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나마도 기호학의 하위 영역을 규명함으로써 기호학을 정제하려는 노력은 신생 학문으로서 기호학이 한창 불을 이루던 시기에 국한된 듯하다. 1970년대, 한창 기호학이 탄력을 받던 시기에 기호학의 하위 영역을 열거하는 몇몇 시도가 있었다.<sup>4)</sup> 그 중의 하나가 에코의 노력이다. 그는 당시만 하더라도 ‘기호학 연구의 성전’이라 불린 『텅 빈 구조 *La structure absente*』에서 기호학의 ‘분야’들을 열거한 바가 있다.<sup>5)</sup>

동물기호학, 후각기호, 접촉 커뮤니케이션, 미각 코드, 병렬언어학, 징후학, 몸짓학과 근친학, 음악 코드, 형식언어, 기록언어 - 미해독 - 알파벳 암호, 자연 언어, 시각 커뮤니케이션, 사물의 체계, 이야기 구조, 메스커무니케이션, 수사학.

일견 다양해 보이는 기호학의 ‘분야’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규칙성은 없다. 이 분야는 기호학의 논리적 ‘하위 영역’이 아니라 당시 기호학 연구의 경향을 그룹으로 묶은 것일 뿐이다. 1970년대 초기에 제안된 이 목록은 그 당시에 이미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예를 들어 프조(J. Pesot)는 “이들 분야 중 하나도 새롭고 독창적인 것은 없다. 이들이 대상으로 하는 것들은 이미 전통적인 개별학문들이 다루어 오던 것들이다. (...) 기호학이란 이미 있던 지식들을 채로 쳐 내어 새로운 이름으로 포장해 내는 것이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한 바가 있다.<sup>6)</sup>

프조의 비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기호학은 하위 영역을 논

4) 기호학 연구가 한창 불을 이루던 시기에 대두된 기호학의 자아 정체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Eschbach(*History of Semiotics*, 1983), Helbo(*Le champ sémiologique*, 1979)에서 정점을 찍는다. 이에 관한 논의는 박일우(1992) 참조.

5) Eco, U., *La structure absente : introduction à la recherche sémiotique*, Mercure de France, 1972, pp.14~19.

6) Pesot, J. *Silence, on parle - introduction à la sémiotique*, Guerin, 1979, p.21.

하기 전에 독자성(autonomy)을 주장하기에도 민망할 정도이다. 하나의 독자적 학문이란 적어도 그 대상과 목표, 방법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기호학은 사실상 규정할 수 없는 무한한 대상을 가진다. 설혹 기호학의 목표가 “기호의 의미작용을 규명”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모든 기호학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일반적 연구 방법은 물론, 다양한 대상에 따른 다양한 연구방법도 좀처럼 합의되기 어렵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서 다른 논리가 나올 수 있다. 기호학은 하나의 독자적 학문이라기보다는 ‘관점’ 혹은 초학제적 학문(trans-discipline)이라는 주장이다. 초학제적 학문은 인접학문(adjacent disciplines)을 가지지 않는다. 초학제적 학문은 기존의 학제적 학문(inter-disciplinary science)과도 다른 개념이다. 후자가 복수의 학문을 가로질러 만들어진 융·복합적 학문이라면 전자는 아예 기존의 학문들이 화학적 융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학문이거나 그들의 ‘원 학문(proto-science)’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바로 이 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기호학은 특유의 학제적 양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단서를 볼 수 있으며 이 점은 오늘날처럼 융·복합이 화두가 되는 맥락에서 기호학이 다시 새로운 사명을 떠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기호학이 가지는 바 학제성은 일찌감치 규명되었다. 예를 들어 소네슨(G. Sonesson)은 의미작용에 관심을 가지는 기존의 전통적 학문인 현상학, 해석학, 수사학의 ‘자매관계’를 기호학에 적용하자는 제안을 한다. 그 논의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sup>7)</sup>

기호학이 기호의 의미작용, 즉 해석의 문제를 다룬다면 피할 수 없는 것이 해석을 다룬 전통적 학문의 존재이다. 먼저 현상학은 우리의 경험에 의해 세상이 구조화되는 방법을 규명하려 한다. 따라서 현상학은 기호학과 마

---

7) Sonesson, G. *Current Issues in Pictorial Semiotics* 1, pp.41~43.  
<http://semioticon.com/sio/files/sonesson/Sonesson1.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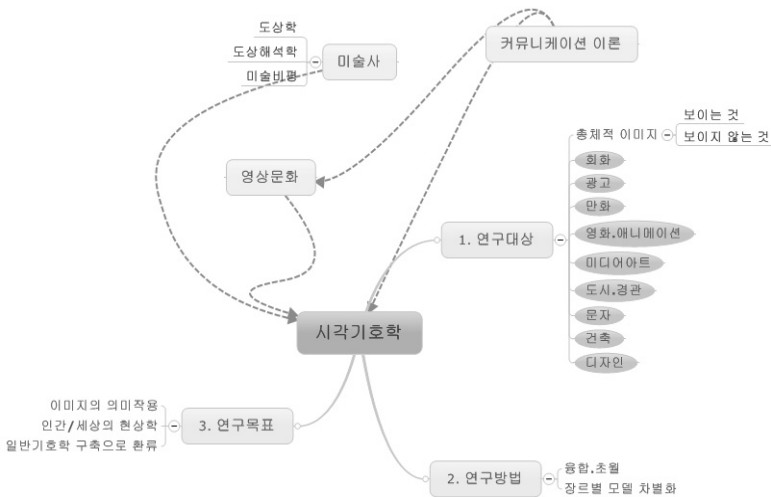
찬가지로 사물이 의미를 우리에게 만들어 내는 방법을 출발점으로 삼으며, 대상은 우리의 관점에 의해 규정된다는 점에서 현상학은 넓은 의미에서 기호학의 한 분야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고려할 학문분야는 수사학이다. 수사학은 고대부터 하나의 ‘에피스테메’로 정착되었고 그 후 실용적 목적에 종사하였으나, ‘그룹 뭉’의 노력으로 기호학의 영역 가운데 현대적 과학으로 다시 태어났다. 해석학은 더 복잡하다. 후기 그리스에서 시작되어 중세를 거쳐 발전된 해석학은 종교적 텍스트를 읽어내는 아리스토텔레스적 의미의 ‘아르스(ars)’이었지만 르네상스를 지나 텍스트의 숨은 의미를 밝혀내는 ‘테크네(techne)’로 변모하였다. 술라이어마허와 딜타이 이후 해석학은 철학의 전통에 편입되는데 여기에는 하이데거의 사유 개념과, 해석학에 사회과학적 지위를 부여한 하버마스의 기여가 전제되어 있다. 이 지점에서 특히 가다머에 의해 해석학과 수사학은 밀접히 연결되어 자매 학문으로 다시 태어난다.

소네슨의 논의처럼, 실제로 해석학, 수사학, 기호학은 모두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에서 다른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따라서 기호학은 현상학과 해석학과 수사학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세 학문들로만 기호학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호학은 전통적인 해석학과는 달리, 특정 사회적 맥락이 제공하는 자원을 통해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주목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기호학은 소네슨의 제안처럼 현상학, 수사학, 해석학의 자매관계 뿐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학문들의 결정체이다.

기호학이 가지는 ‘초학제성’의 지위는 다른 사례에서도 입증할 수 있다. 기호를 각각 별로 구별할 수 있는가의 논의는 별도로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국내외에서 널리 진행되고 있는 기호학 연구의 하위 영역 중 하나인 시각기호학(visual semiotics)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우리는 지난 몇 년 간 시각기호학을 자율적 학문분야로 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오랜 고민 끝에 우리는 시각기호학의 내적 구성을 [그림 1]로 그나마 잠정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었다.



시각기호학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이미지 일반, 그 중에서도 보이는 것뿐만 아닌 ‘보이지 않는 것(invisible)’과의 관계까지 포함하여 규정된 연구 대상을 가질 것이다. 연구 방법은 인문학 전반, 즉 미술사, 심리학, 커뮤니케이션 이론 뿐 아니라 ‘시지각’을 규명하는 생리학적 성과를 융합하고 가로지르는 입장을 택한다. 이를 통해 시각기호학은 전통적인 도상학의 성과를 넘어서는 수준에서 이미지가 가지는 의미작용의 일반 모델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 한편, 시각기호학의 정체성은 일반기호학과 마찬가지로 결국 자기수용적 주체(sujet proprioceptif)로서 인간이 외부 세계와 맺는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을 것이다.



[그림 1] 시각기호학의 내적 구성

시각기호학을 정제하려는 부분적인 시도에서도 동원되는 기존의 학문들은 그 수가 적지 않았다. 실제로 시각기호학을 구성하는 학문들의 관계

는 [그림 1]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시각기호학은 여기에 동원된 여러 기존 학문들과의 상대적 관계가 아닌, 기존 학문들의 화학적 융합에서 만들어질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 Ⅲ. 기호학이 모르고 있었던 것

지난 20여 년 간, 국내에서 기호학 연구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기록하였다. 이는 기호학의 종주국인 프랑스를 비롯한 서구에서 같은 시기에 벌어진 문화과학, 인지과학 등의 급속한 발전으로 말미암아 정작 전통적인 기호학 연구는 상대적으로 정체된 느낌을 주는 것과는 대비된다. 그동안 국내 기호학의 연구는 부단한 이론적 접근과 함께, 특히 기호학 연구의 실천적 양상이라 볼 만한 문화 콘텐츠 연구와 실천 분야에서 가시적인 결과물들을 남겼고, 몇몇 선도적인 연구가들에 의해 문학기호학, 문자학, 디자인기호학, 매스커뮤니케이션 기호학, 시각기호학 분야를 비롯한 개별 기호학의 영역에서 의미 있는 연구를 진행해오면서 글로벌 차원에서 한국 기호학의 존재감과 나아가 우수성을 입증해 왔다. 최근에는 세계기호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Semiotic Studies)의 부회장을 배출하게 된 것은 해당 개인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이를 뒷받침해온 한국기호학회의 역량을 공인받게 된 쾌거이기도 하다.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 고등교육에서도 조용하지만 본질적인 혁신의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었다. 1980년대 이후 도입된 우리나라 특유의 고등교육 정책은 매우 기형적인 고등교육 기관과 교육과정을 양산해 내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과 질적 하락을 가져오게 하였다. 1990년대 이후, 대학입학생은 고등학교 졸업생의 80%를 상회하고, 전국의 대학(교) 수가 300개를 넘어서는 전대미문의 팽창이 있었으나 이는 곧 새 밀레니엄을 맞아 재앙으로 돌변하게 되었다. 그동안 팽창만 거듭하던 대학은 디지털 지식산업사회를 맞이할 학생들에

게 새로운 교육과정을 제공해 주는데 실패하였으며, 당장 경제적 결실을 가져오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인문학은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때마침 불어 닥친 신자유주의와 교육당국의 계속된 실정 역시 이 위기의 배경이 되었다. 재앙은 시작되었다. 향후 몇 년 내에 대학 입학정원은 고등학교 졸업생 수를 능가하게 된다. ‘좋은 시절’은 너무도 빨리 지나가 버렸다. 이제 대학은 구조조정이라는 외과 처치를 앞둔 중환자의 신세가 된 것이다. 전국의 모든 대학들이 수술용 매스를 들고 나선 교육당국의 눈치를 보면서 숨죽이는 것이 어제 오늘의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모습이다.

이런 민망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생태계에서는 두 가지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첫 번째는 기존의 대학 제도를 대체하는 일부의 움직임이다. 더 이상 진리의 상아탑이 아닌 기존의 대학을 떠나 새로운 고등교육의 이념과 실천을 위한 움직임이 최근의 ‘건명원’으로, 좀 더 사회비판·혁신의 관점을 가진 적극적인 경우로서 ‘지식순환협동조합 대안대학(약칭 ‘지순협’)

이라는 대안교육기관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비록 이들이 공적 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고등교육의 이념을 설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사회적 주목을 받는 것이다. 아래는 건명원과 지순협의 교육 이념과 교육목표의 일부를 보여 준다.<sup>8)</sup>

(...) 건명원의 목적은 새로운 창의적 지식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에 있다. 건명원에서 추구하는 인재는 단편적 지식들의 학습을 통한 구체적 문제해결 능력을 보여주기보다는, 세상에 대한 경이로움과 호기심으로 ‘위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물음 부호 형 인간, 형이상학적 인간형을 지향한다. 건명원은 한국의 기존 고등교육체계의 제도적 틀과 분과 학문 체계에서 벗어나 한국 인문지식 교육의 아방가르드를 지향하고, 궁극적으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다.

8) [건명원 교육이념] (<http://www.gunmyung.or.kr/sub/intro.php>)

(...)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은 더 이상 성숙한 전인적 완성으로 귀결되지 않습니다. 지식의 칸막이는 점점 높고 견고해지고 있으며, 교육의 영역에서조차 경쟁이 최고의 논리가 되었습니다. (...) 본래 교육은 과거를 통해 현재를 진단하며, 지식과 경험, 감정과 정념의 승화와 확산을 통해 좋은 삶을 모색하는 핵심적 근거였습니다. (...) 우리는 교육을 통해 인간과 사회의 지속 가능한 희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상의 경험적 지식과 심원한 전문적 지식을 마주치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분과학문의 폐쇄적인 장벽을 넘어, 과학과 예술을,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철학과 공학을 널리 가로지르는 전인적 교육을 실천하고자 합니다.<sup>9)</sup>

두 번째 움직임은 그나마 대학이란 울타리를 유지하면서 오늘날 대학교육의 위기와 학문적 위기를 교양교육의 혁신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2006년 6월에 창설된 한국교양교육학회와 2011년 8월에 창설된 한국교양기초교육원<sup>10)</sup>이 그것이다. 한국교양교육회는 아래와 같은 이념을 지향한다.<sup>11)</sup>:

21세기 지식융합사회에서는 대학교육을 통해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질인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 의사소통역량,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학문 세계 뿐 아니라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분화된 지식을 통섭하여 시대가 요구하는 총체적이고 통찰력 있는 안목을 갖춘 지성인을 배양하는 것은 한국교양교육학회의 중대한 임무 중 하나이다.

9) 『지식순환협동조합 대안대학 교육과정 가이드 북』, 2015, 1쪽, “왜 [지순협 대안대학]인가?”

10) 이 기관은 기존의 ‘교양교육’이란 용어 대신 ‘교양기초교육’이란 용어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교양교육은 전공학문의 연마를 위한 기초교육의 영역을 아울러야 한다는 이 기관의 의지를 반영하지만, 이 글에서 우리는 귀에 익은 ‘교양교육’이라는 용어를 유지하고자 한다.

11) [한국교양학회 학회소개]

[http://www.kagedu.or.kr/modules/doc/index.php?doc=page1&\\_\\_M\\_ID=63](http://www.kagedu.or.kr/modules/doc/index.php?doc=page1&__M_ID=63))

한국교양교육학회는 창립 이후 특히 인문학 연구자에게는 새로운 ‘블루 오션’으로 부각되었다. 이 학회의 기관지인 『교양교육연구』는 초창기의 연간 발행회수가 2회이었으나 곧바로 6회로 늘어나게 되었으며<sup>12)</sup>, 년 2회 열리는 학술대회 및 비정기 심포지움에 참여하는 회원들은 최근 들어 평균 400명을 상회한다. 인문사회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순수 학술단체로서 이 정도의 파급력을 가지는 학회는 유래가 없을 것이다.

한국교양기초교육원(약칭 교기원)의 경우는 성격이 좀 다르다. 이 기관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약칭 대교협)의 산하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즉, 한국교양교육학회를 중심으로 순수한 학술적 논의가 진행된다면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은 국고 지원을 등에 업은 일종의 실천 기관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일선 고등교육기관에서 교기원이 가지는 영향력은 ‘현실’이다.<sup>13)</sup> 교기원은 치열한 내부 논의를 거쳐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대교협 산하 기관이 되면서<sup>14)</sup> 교양교육에 관한 학술적 ‘싱크 탱크’의 역할 뿐 아니라 대학별 교양교육 컨설팅 주체, 최근에는 교양교육 연구지원 기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교기원은 교양교육에 관련된 연구과제 뿐 아니라 ‘교양기초교육’을 한국연구재단이 학문의 ‘학술연구분야분류표’에 포함(B121116/사회과학-교육학-분야교육-교양기초교육)하도록 함으로써, 이 분야의 연구와 학술활동이 연구비 신청 영역이 되도록 하는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기도 하였다. [그림 2]는 교기원의 사명을 보인다.<sup>15)</sup>

12) 최근 한국교양교육학회는 새로운 의미의 교양교육의 파급이라는 첫 단계의 목표를 달성하였음을 고려하고 학술지의 질적 담보를 위해 기관지 발행을 연 4회로 하향 조정하였다.

13) 게다가 대교협은, 그것이 옳은 것이든 또 다른 잘못된 방향이든, 정부주도의 고등교육 정책·방침과 평가를 전제로 하는 재정 지원 사업을 무시할 수 없는 모든 대학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또 하나의 ‘권부’이기도 하다.

14) 우리는 이 과정에 처음부터 참여하였으며 교기원의 발전을 늘 현장에서 지켜보았다.

15) [한국교양기초교육원 비전 및 미션] ([http://konige.kr/sub04\\_02.php](http://konige.kr/sub04_02.php))

### 비전

글로벌 시대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교육과정 전반의 개혁을 지향하는 범대학적 기구

### 미션

- 대학내외의 교양기초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 주도
- 전공 및 교양 교육을 아우르는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교양기초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 성과 확산 및 공유

[그림 2]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비전과 미션

이 두 기관이 주도하는 교양교육의 혁신은 과거 제기되었거나 진행되었던 고등교육의 그 어떤 혁신과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공감대를 얻고 있다. 이런 현상은 급변하는 고등교육의 환경 가운데에서 인습에 젖었던 부분을 직시하고 이를 변혁하려 노력하는 교육자들 사이에서 확산되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교양교육, 더 직설적으로 ‘교양수업’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치부되었다:

- 교수자의 입장에서는 ‘쉬운 내용’으로 별도의 연구도 필요 없는, 책임시수 관리 용 수업, 혹은 대학원 지도 제자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는 시혜 용 수업
-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이나 재탕하는 것으로, 꼬박 꼬박 출석이나 하고, 적당히 베끼거나 인터넷 자료를 드래깁한 과제를 제출하면 학점 잘 나오는 전략과목
- 학교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쓴 임금의 시간강사들을 고용하여 진행하는 수업, 혹은 교양교재를 발간하고 신입생들이 일률적으로 구매하게 하여 째깍한 수익을 얻는 수단.

다소 과격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대학의 위기, 인문학의 위기가 거론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양교육의 실체는 이러한 진단에서 그리 차이가 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한국교양교육학회나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은 교양교육에 관한 이러한 통념에 맞서서 오랫동안 지난한 싸움을

진행해 왔으며, 오늘날 이들의 목소리는 교육현장에서 상당한 공명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교양교육, 오늘날 국내 대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일반교육(general education)’은 그 뿌리가 ‘자유교양 교육(liberal education)’이었다. 자유교양 교육은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한다. 그 시대 인간의 본성은 자유로운 이성의 계발에 의해 발달되고 이를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만 인간이라는 범주에 속하는 경우 노예와 여성을 제외한 시민권 자격이 있는 소수에 불과하였으나 오늘날 교양교육은 결국 완전한 인격을 지닌 사회적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가치나 품성교육, 소통능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재정립된다. 그리스에서 시작된 자유교양 교육의 덕목은 오늘날과 같은 고등 교육의 위기, 인성 상실, 강요된 신자유주의적 질서, 디지털 매체로 인한 역설적인 소통의 상실 시대에서 다시 강조된다. 교양교육이란 “올바른 세계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세계화된 새로운 정보 사회에서 비판적 창의적 사고와 원활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공동체적 문화적 삶을 자율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주체적인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sup>16)</sup>이라는 견해에 오늘날의 교양교육 전문가들 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 글의 핵심 주장을 개진해보자.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내용은 강한 연관성을 맺고 있다. 기호학은 본질적으로 학제적, 초학제적인 과학이었다. 이는 곧, 기호학이나 기호학적 관점은 오늘날 교양교육의 혁신과정에서 강조해 마지않는 융·복합의 보고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양교육이 협량한 분과학문에 매몰된 연구자의 역량에서 진행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융·복합이란 유행어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융·복합을 실천하여 왔던 기호학을 도입하고 상당한 성과를 내었던 국내 기호학자들은 과연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얼마나 부응하였던가? 기호학을 관념으로 칭칭 묶어버린, 현학적 취미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시

---

16)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창립 기념 심포지움 (2005. 04. 22) 자료

대의 요구는 짐짓 눈감지 않았던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았다. 기호학은 결국 실천을 지향하는 학문이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제 4 장은 그러한 노력의 사례 일부를 보여준다.

#### IV. 기호학, 교양교육으로 다가간다

앞 장에서 보았듯, 국내에서 기호학의 발전과 교양교육의 발전은 시기를 같이 하여 진행되었다. 같은 시기, 서구 지성계에서 기호학의 외연 역시 확장을 거듭하여 최근에는 교육학자들이 기호학적 관점을 교육학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게 되었다. ‘교육기호학(Edu-Semiotics)’라는 용어는 2010년 마르셀 다네시가 『기호학의 교육 경험 *Semiotics Education Experience*』의 머리말에서 최초로 도입하였다. 이 ‘교육기호학’이 별도의 분야로 만들어 진 계기 중의 하나는 매년 아름다운 휴양지 핀란드 이마트라에서 열리는 저 유명한 <기호학·구조주의 연구 국제 하계학교(International Summer School for Semiotic and Structural Studies)>의 2013년 모임에서 교육기호학이 하나의 분과로 개설된 사건이다. 이 분야를 주도하는 학자들은 노르웨이, 핀란드 러시아 등의 북유럽을 중심으로 일부 영국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분과에서 발표된 연구들은 지식 전달 교육에서 탈피하여 학습자들의 자유분방한 사고를 촉진하기 위한 교수법의 인식론적 도구를 기호학에서 찾으려는 시도(A. Olteanu, “The Path of Signs: the Path towards Lineral Education”),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학생의 상호작용을 기호학적 관점에서 해명(A. Stables, “That-Wchich-Is-To-Belarnrt as External Relation)하려는 시도 등 교수법 일반과 교수 매체, 사회 교육 등의 주제를 넓게 다루면서, 참관자들로 하여금 다시 한 번 기호학적 관점의 학제성과 생산성을 돌아보게 하였다. 그 후 교육기호학은 2014년 소피아에서 열린 제12회 국제기호학회에서 한 분과로 진행되면서 공식적인 출범을 맞이하게 되었다.



국내에서 기호학의 발전은 주로 프랑스를 중심으로 서구 학풍의 세례를 받은 인문학자들이 주도해 온 만큼, 아직은 국내 교육학자들이 기호학을 만났다는 징후는 없다. 반대로 교양교육 차원에 기호학이 어떤 형식으로든 도입된 사례들은 있다. 최근에 대두된 교육기호학에서처럼 교육학과 기호학의 인식론적 관계를 논하는 단계도 없이 바로 기호학이 국내 대학의 교양교육과정에 도입된 구체적 사례가 있음은 국내 기호학 연구의 역량이 상당히 자라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소개하는 두 사례는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공모한 융·복합 교양교과목 개발 사업에서 2013년과 2014년 연이어 선정된 것이다. 이 두 교과목 사례에도 성격에서 차이가 있다. <그림읽기로 세상보기>는 사실상 시각기호학의 쟁점을 쉽게 교양교육의 장에 접목한 교과목이다. 두 번째 사례인 <SciArt 들여다보기>는 예술과 과학의 융·복합을 구현한 교과목이지만, 그 가운데에는 기호학이 추구하는 ‘가로지르기’라는 원칙과 실천이 숨어 들어 있다.

## 1. <그림읽기로 세상보기> 연구 개발

이 연구는 대학 교양교육의 혁신 움직임에 동참하면서 인문학과 예술이 융합된 새로운 교과목을 개발하여야 할 필요성과 이론적 배경을 밝히고, 실제로 신규 교과목 <그림읽기로 세상보기>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 수업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 현대 사회를 특징짓는 이미지의 폭증 현상과 이미지의 소재, 이미지의 오·남용을 인식한다.
- 본질적으로 다의적인 이미지에 시각기호학이 발전시킨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 의미를 ‘읽어 내는’ 능력과 그 이미지가 가진 커뮤니케이션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도록 한다.
- 건강한 교양인으로서 현대의 다양한 이미지를 읽어 내는 체험과 난해한

현대미술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 자질을 키운다.

- 이미지를 글로 번역해 내는 이미지 리터러시를 함양한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먼저 관련 국내외 연구 경향을 분석하여 개발의 방향성을 파악하였다. 이론적 배경과 연구방법은 시각기호학이며 여기에는 이미지 리터러시와 도상해석학, 문화연구가 포함된다.

연구진은 예상 수강생들을 면담하여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맞추어 콘텐츠 시안을 만들어 이를 예술과 인문학 융·복합 전문가, 글쓰기 교육 전문가, 교양교육 정책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정, 보완하여 12주차의 강의실 강의, 2회의 미술관 방문, 2차례의 교수학습지원시스템(LMS)를 통한 온라인 토론과 팀프로젝트로 수업을 구성하고, 매 주차 당 A4 4쪽 기준의 교안과 1쪽의 수업 유의점, 20매의 강의용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제작하였다.

한편 이 수업은 이미지 리터러시를 구현하기 위해 시각언어(이미지)를 구두 언어로 번역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이 수업은 엄밀한 글쓰기 교육과 실천을 포함하게 되었다. 융·복합 교과목이란 단순히 상이한 학문분야들의 교집합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연구진은 기존의 학문 분야는 처음부터 염두에 두지 않고 오로지 학생들에게 필요한 미적 체험, 정서적 체험, 신체적 요구를 반영하려고 하였다. [표 1]은 개발이 완료되어 현재 진행 중인 주차별 강의계획서이다.

[표 1] 〈그림읽기로 세상보기〉 주차별 강의계획서

1주차	단원 1: 이미지의 재발견 이미지의 시대와 이미지의 보고(寶庫) 수업 목표, 수업 진행 및 평가 안내 인터넷의 이미지 보고
2주차	이미지의 관념과 윤리 “본다”는 것은? 이미지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원리 이해

3주차	이미지의 재발견 이미지는 모두 예술작품이다? 이미지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온라인 토론 1 진행
4주차	단원 2: 이미지 읽기 글과 그림 글과 그림의 상호 관계 : 구체시, 칼리그람, 광고, 그림책 현대의 상형문자 : 타이포그래피, 캘리그래피, 문자도, 동파문자
5주차	이미지 분석의 이론과 실제: 이제석 따라하기 이미지는 왜 분석해야 하는가? 이미지 분석의 한 방법: 도상해석학적 접근 방법
6주차	이미지의 현장을 찾아서 르네상스의 본거지 피렌체 안내 현대 미술의 본거지 가상 방문 1회차 : 피렌체 미술관 가상 탐방 2회차 : 상하이 모간산루, 도쿄 롯본기 삼각지 가상 탐방 토론 2 진행
7주차	미술관 방문(구상 작품 위주): 이미지의 체험과 글쓰기 1
8주차	다시 정의되는 이미지 : 새로운 이미지에 대한 기초적 이론 이해 기술사회에서 이미지의 복제 팀프로젝트 시작)
9주차	단원 3: 이미지의 확장 현대미술의 특징 현대미술은 왜 어려운가?
10주차	현대미술에서 이미지의 변형 레디메이드와 이미지의 소멸 복제에서 패러디로
11주차	현대미술의 확장 소통과 치유로서의 미술 사고의 확장과 환경을 위한 미술
12주차	미술관 방문(비구상 혹은 미디어아트): 이미지의 체험과 글쓰기 2
13주차	팀프로젝트 발표(1)
14주차	팀프로젝트 발표(2) 및 평가
15주차	정기고사
16주차	(예비주)

## 2. 〈SciArt 들여다보기〉 연구 개발

과학과 예술의 융·복합 교과목 <SciArt 들여다보기> 연구 개발의 취지는 과학과 예술의 동력으로서 창조성의 중요도를 학생들에게 일깨우면서, 이를 통해 정체되고 일률적인 차원에서 행해진 학습방식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다원적이며 열린 차원의 새로운 사고의 틀에 입각한 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 수업의 목표는 예술과 과학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예술형식인 ‘SciArt(SciArt)’의 이념, 방법, 현황과 과제를 고찰함으로써 융·복합적 사고력과 창의성을 함양하려는 것이었다. 이 수업의 매 차시별 강의 내용, 교수·학습 방법, 과제는 다음과 같은 교수자들의 공통 인식에서 설계되었다.

과학과 예술은 창의성이라는 공통의 어머니로부터 태어났다. 이들의 조화는 서로의 성장과 진화를 촉구하는 매개의 양분이 되어왔다. 예술과 과학이 서로의 간격을 좁히고 그 관계를 밀착하기 위해서는 창의성이라는 중재물이 필요하다. 창조성의 원천을 밝히고, 우리의 현대적 삶 속에서 그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킴으로써,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실현하기 위한 동력으로 부각시키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른바 SciArt의 개념 규정을 시도한다.

강의는 모두 4부로 진행된다. 제 1부 ‘융합의 전략과 창조적 상상력’의 첫 단계는 과학과 예술의 융합을 실현한 다재다능한 인간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지적세계를 이해하고 SciArt의 개념을 정리한다. 이를 통해 창조성의 원천과 그 과정을 파악하여 과학과 예술의 융합을 위한 매개로서의 역할과 창조의 동인을 검토한다. 제 2부 ‘과학기술과 예술의 만남’은 과학과 예술이 만나 융합으로 가는 근간을 조성하는 바를 역사적 맥락으로 모색한다. 이 단계에서는 기술의 진보와 새로운 예술의 탄생에 대해 예술의 근본 개념을 파악하고, 새로운 매체의 등장과 기술의 진보가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고 인간의 정신과 인간 자체가 진화하도록 한다는

것을 파악한다. 이 단계는 동시대의 SciArt를 형성하기 위한 실험의 단계로 수학과 예술, 의학과 예술과 같은 예술과 과학의 조우에 대한 여러 사례와 현상을 관찰한다. 제 3부 ‘뉴미디어의 시대의 과학과 예술’은 뉴미디어시대를 맞이하여 과학과 예술이라는 이중접합과 융합의 현상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변화하는 인간의 지각체계와 경험을 분석한다. 새로운 매체는 인간의 몸의 한계와 시간과 공간의 경계면을 가로지르며 인간감각과 경험의 영역을 확장한다. 이 단계에서는 소위 말하는 ‘포스트 휴먼’ 시대의 문제와 관련된 사이보그, 하이브리드 예술과 디지털 환경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형성되는 사이버 공동체와 기술복제의 문제를 다루면서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의 변화와 이에 반응하는 SciArt의 관계를 밝힌다. 제 4부 ‘창조적 삶의 디자인’에서는 SciArt를 도구로 창조적 삶의 디자인을 시도한다. SciArt의 현재를 앞서 주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와 관련된 청사진을 설계한다. 인간의 삶 전반에 대한 창의적 기획을 통해 미래 지향적인 과학도시, 인류의 진보를 향한 젊은 상상력을 육성하고자 창의성 발휘를 위한 기획안을 구상한다. [표 2]는 이 수업의 주차별 강의계획서이다.

[표 2] SciArt 주차별 강의계획서

1주차	과학과 예술의 경계 횡단 1회차 : 'SciArt'의 세계:오리엔테이션 2회차 : 피카소와 이인슈타인 3회차 : 창조활동의 미학적 기반
2주차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지적모험 1회차 : 르네상스 시대의 지적 풍토 2회차 : 만능의 천재 3회차 : 관찰과 표현
3주차	창조성의 원천 1회차 : 창조성의 개념과 의의 2회차 : 인간의 창조활동 3회차 : 융합의 창조성

4주차	오프라인 수업 1회차 : 온라인 수업 유의점 2회차 : 토론 활동 tip 안내 3회차 : 1~3주차 내용 복습 및 향후 수업 내용 안내
5주차	기계와 예술 1회차 : 기계에 대한 찬미와 항거 2회차 : 기하학적 추상과 옵아트 3회차 : 장치로서의 예술 : 키네틱아트와 라이트아트
6주차	기술의 진보와 새로운 패러다임 1회차 : 테크네(techne)와 아르스(ars) 2회차 : 기술의 변화와 사고의 변화 3회차 : 기술적 상상력
7주차	수학과 예술 1회차 : 비례(proportion)의 미학: 카논(canon) 2회차 : 황금분할(golden section)의 원리 3회차 : 원근법의 발견과 응용
8주차	경험세계의 확장 1회차 : 새로운 시지각 영역 2회차 : 공감각의 세계 3회차 : 사이보그 인간의 열린 경험
9주차	의학과 예술 1회차 : 몸과 예술: 해부학 2회차 : 과학의 시각화 : 동식물도감 3회차 : 예술과 치유
10주차	로보틱스와 SciArt 1회차 : 하이브리드 예술과 퍼포먼스 2회차 : 기계인간의 가능성 3회차 : 로봇 예술의 현 주소
11주차	상호작용성과 SciArt 1회차 : 생산과 소비의 상호작용 2회차 : 미디어아트에서의 상호작용 3회차 : 공(共)창조의 미학과 윤리
12주차	디지털 환경과 SciArt 1회차 : 미디어 파사드 2회차 : 복제기술과 이미지 생산 3회차 : 사이버 공동체에서의 예술

13주차	과학예술 도시의 상상력 1회차 : 건축예술의 장래 2회차 : 창조도시의 이념과 실천 3회차 : 미래도시의 꿈
14주차	버추얼 공간에서 삶과 문화 1회차 : SF세계의 매력과 매력 2회차 : 실재감을 통한 상상력의 복원 3회차 : 기계론적 인간관의 비판
15주차	총정리
16주차	정기고사

## V. 맺는 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기호학은 태생에서부터 초학제적 성격을 가지는 학문분야이었으며, 오늘날 교양기초교육의 패러다임이 전통적인 분학의 기초지식 습득에서부터 학제적 접근을 통한 창의성이 제고라는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이 두 분야의 만남은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수순이라 볼 수 있다. 이 지점에서 기호학의 관점에서는 기호학이 교양교육 과정의 혁신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입장은 기호학의 위상을 학문이 아닌 하나의 방법으로 격하시킨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겠다. 물론 기호학은 하나의 학문, 그것도 21세기에도 발전을 멈추지 않을 첨단 초학제적 학문이다. 비록 인근 분야, 특히 영상문화 연구의 급속한 발전에 발맞추어 가지 못한 측면이 있고, 특히 미학 분야에서는 기호학 특유의 생경한 용어 체계와 난해한 도식, 초기 언어 모델에서 벗어나지 못한 차원의 연구결과만 수용된 사실 등에 기인한 오해와 비판을 받고 있는 현실이지만 여전히 기호학의 사명과, 특히 텍스트 해석에서 보이는 정치한 분석 수단은 그 어느 인접학문에서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해 있다.

기호학이 교양교육에 관심을 가지자는 주장은 기호학이 “내려오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교양교육을 도구 과목, 특정 학문의 기초로 인식하는 관점으로는 기호학의 위상을 낮추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교양교육의 장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혁신의 물결은 더 이상 교양교육을 전공교육과 대립되는 ‘입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교양교육이 추구하는 것은 융합을 통한 새로운 창의적 사고의 배양이며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인문학을 개척해 나가자는 것이다. 일찌감치 그리스에서 태동된 후 르네상스와 계몽주의 시대를 통해 서구의 사상적 지주가 되었지만 산업혁명 이후 모든 것을 물질로 치환하는 근대성의 물결에 휩쓸려 잠시 그 진면모가 가려졌던 ‘인문주의(humanism)’을 다시 복구하자는 것이다. 오늘날 교양교육의 장에서 벌어지는 노력들은 어쩌면 ‘르네상스의 르네상스’일지도 모른다. 기호학이 교양교육, 나아가 ‘인문교육(liberal education)’의 사상적 배경을 수립하고 실천적 차원에서는 교양교육과정의 혁신에 동참하자는 호소는 따라서 기호학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교양교육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올라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 언급된 국내 고등교육의 위기는 실상 국내의 것만이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 고등교육을 포함한 교육 전반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통제, 거기에 대응할 교육학 자체의 방어 논리 개발은 오늘날 교육학의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 당국이 주도하는 고등교육의 혁신과 구조조정이 오늘날 고등교육기관이 봉착한 문제의 원인이 아니다.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선업사회가 정교해질수록 더 많은 전공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교육의 역사였지만, 이제 새로운 지식정보산업의 시대에서는 더 이상 편협한 분화에 매몰되지 않고 복수의 전공 체계와 탄탄한 기초를 가진  $\pi$  형 인재상을 요구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sup>17)</sup> 국내 뿐 아니라 적지 않은 외국의 고등교육 기관들이 이러한 본연

17) 일반적으로 하나의 전공을 깊게 추구하는 인재상은 I형, 폭넓은 기초 소양을 바탕으로 하나의 전공을 깊게 파고드는 인재상을 T형으로 부르는데 비해, 폭넓은 기초적 소양과 복수의 전공을 심화하는 인재상을  $\pi$ 형 인재라 부른다.



의 사명에 충실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기호학은, 적어도 기호학적 연구의 전제는 바로 이  $\pi$ 형 모델이었다.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교양교육의 혁신이라는 시대적 도전은 실은 기호학과 기호학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도약을 향한 새로운 기회인 것이다. 그 기회는 현실적인 모습으로 이미 우리의 옆에 놓여 있다. 다양한 프로젝트와 실험, 개발을 위한 풍부한 연구과제 지원사업도 그 중의 하나이다. 이 새로운 블루 오션에 기호학 동학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민주식 외, 『융·복합 강의3.0 <SciArt 들여다보기> 개발 신청서』, 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14.
- 박일우, 「기호학의 사적 고찰」, 『佛語佛文學研究』 제27집 제1호, 불어불문학회, 1992, 289~315쪽.
- 박일우·기정희, 『인문학·예술 융·복합 신규 교과목 <그림읽기로 세상보기> 개발』, 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13.
- 지식순환협동조합, 『지식순환협동조합 대안대학 교육과정가이드 북』, 2015.
- Courtés, J., *Introduction, à la sémiotique narrative et discursive*, Hachette, 1976.
- Eco, U., *La structure absente : introduction à la recherche sémiotique*, Mercure de France, 1972.
- International Semiotic Institute, *Abstract*, 25<sup>th</sup> International Summer School for Semiotic and Structural Studies, Imatra, 2013.
- Pesot, J. *Silence, on parle - introduction à la sémiotique*, Guerin, 1979.

## 참조 사이트

- [Sonesson, G. Current Issues in Pictorial Semiotics 1], July 2010.  
<http://semioticon.com/sio/files/sonesson/Sonesson1.pdf>
- [Semiotics] <http://en.wikipedia.org/wiki/Semiotics>
- [건명원 교육이념] <http://www.gunmyung.or.kr/sub/intro.php>
- [한국교양학회 학회소개]  
[http://www.kagedu.or.kr/modules/doc/index.php?doc=page1&\\_\\_M\\_ID=63](http://www.kagedu.or.kr/modules/doc/index.php?doc=page1&__M_ID=63)
- [한국교양기초교육원 비전 및 미션] [http://konige.kr/sub04\\_02.php](http://konige.kr/sub04_02.php)

## A new mission of Semiotics: contribution to the liberal education

Park, Il-Woo

In this paper we attempted to review the trans-disciplinary characters of the Semiotic studies and its applicableness to the general education. Semiotics have been built up, from beginning, as an interdisciplinary science, but with flow of new media, it is endowed with another character; trans-disciplinary science or ‘point of view’ that envelopes all the epistemological approaches. Meanwhile, the current situation of college education in Korea is now suffering from a renovation of curricula and hard wares reconstruction that is an unavoidable result from the past wrong oriented history of college education and policies. Now, general education, as well as ‘major’ education, are forced to be reformed on the ground of the methodological ‘convergence’, of which none but semiotics have been made. This article treated two examples of new general education curricula developed from the semiotic point of view, and proposed that it is time for semiotic studies to participate and lead the age of reforming college education not only in its philosophical aspect but practical fields.

Key Words: trans-discipline, semiotic approach, general education, convergence, applied semiotics

투고일 : 2015. 04. 30. / 심사일 : 2015. 05. 10. / 심사완료일 : 2015. 05. 25.